건강 칼럼

갑상선암, 술 마시는 사람은 적게 걸린다?… "천만의 말씀"

최 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갑상선암 유병자수는 남녀를 합쳐 37만9946명으로 전체의 21.8%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16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의원을 통해 암 확진을 받은 인원 통계에서도 갑상선암은 전체 5615명 중 2594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다행히 갑상선암은 5년 생존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가 시행됐을 때 얘기다.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초기 증상 없고 여성이 3~4배 많아

갑상선암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진행이 많이 되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많은 경우 건강검진 시 우연히 발견된다. 그러나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갑상선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목에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고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종양이 주변 신경에 침범하게 되면 쉰 목소리가 나오거나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종양의 크기가 커져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갑상선암은 주로 여성에서 많이 나타난다. 남성에 비해 3~4배 정도 많다.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는 40~50대지만 30대 초반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영향과 임신, 출산과 관련돼 갑상선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남성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시기 놓치면 임파선타고 전이 위험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다고 알려진 갑상선암의 경우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이 진행돼 임파선 등으로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재발이 되는 등 치료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내원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

암으로 진단된 경우 목 부위 임파절로의 전이 여부 및 갑상선 주변 장기로의 침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부 초음파 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를 시행해 수술 범위를 결정하고 수술을 시행한다.

갑상선 치료의 원칙은 수술이다. 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암을 가만히 놔두면 전이할 수 있고 주변 조직으로 파고드는 침윤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 후에는 수술 소견 및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고 갑상선 호르몬 투여를 통2 내인성 TSH 억제 치료를 한다.

수술은 절개수술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절개수술의 경우 목에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이용해흉터가 적은 수술을 시행한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치료 성과와 그 예후가 매우 좋은 편이지만 이는 낮은 병기에서 조기 치료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고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 내에 종양 있을 땐 100% 완치

갑상선암 수술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수술 시행 여부와 수술 범위다. 최근에는 갑상선암 크기가 작고 암의 위치가 갑상선 내에 국한된 경우 수술 시행을 미루고 환자와 상의해 '적극적 관찰'을 시행하기도 한다. 암이 더 크거나 주변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면 그때 수술이 시행된다.

보통 갑상선암의 완치율은 5년보다는 10년을 보는 경향이 많다. 워낙 천천히 자라는 특성상 늦게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생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암이 장기 내에만 있는 제한적 상황에서는 거의 100% 완치율을 보이고, 암이 주변 임파선이나 주변 조직 등으로 적은 침윤을 보이는 국소적 침범이 있을 때도 꾸준히 치료하면 94% 정도 완치된다. 다만 폐나 뼈 등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을 때는 생존율이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예전 통계에 술을 마시는 사람에서 갑상선암이 오히려 적게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과음을 자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흡연과 비만도 갑상선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다. 갑상선암은 예후도 좋고 걸렸다 해도 전문의와 상의해 수술을 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얼마든지 완치될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국립극장 철거 규탄하는 알바니아 사람들

18일(현지시간)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알바니아 예술인들과 야당 지지자들이 국립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위하고 있다.

"국민만이 국민을 구할 수 있다"

18일(현지시간) 에콰도르 키토에서 다수의 노동조합이 주최한 시위가 열려 마스크를 쓴 한 참가자가 "국민만이 국민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사 설

젊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전북도에 물어볼 말이 있다.젊은 여성 일자리창출에도 힘쓰고 잇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리는 전북연구원이 지난날 여러 번 말했던 바이기도 하다. 젊은 인구 동향과 관련해서 전북도는 앞을 내다보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지사는 젊은 여성들에 관심을 여러 번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워라밸 정책을 위해 직원 목소리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도 했었다.

이제 그말들의 약발을 보여야겠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과제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도내 인구 유출 대다수는 청년들일 것이라 여겼었는데 그게 짧은 생각이었다. 스무살에서 스물네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의 유출보다도 더하다는 보고가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젊은 여성 인구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겠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도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겠다.

전북도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마음을 써야 한다. 젊은 여성들이 고향을 지키며 살게 하려면 약속에 대한 실천이 따라야 한다. 젊은 여성들이 바라는 바 일자리를 챙겨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물론 그게 쉽지 않은 숙제이므로 전력투구해야만 한다. 다른 해결해야 할 숙젯거리가 산더미라 힘이 들리라는 짐작이다. 그래도 전북도는 힘내야 한다. 더 중요한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팔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 전북도가 미래 비전을 여러 번 말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저번에도 여러 번 주문했거니와 문제 해결에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북도는 젊은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겠다. 도지사도 언급했던 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에 신경을 쓴 그 이상으로 젊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신경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여성들의 유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터이다.

개인 소득 전국 최하위 벗어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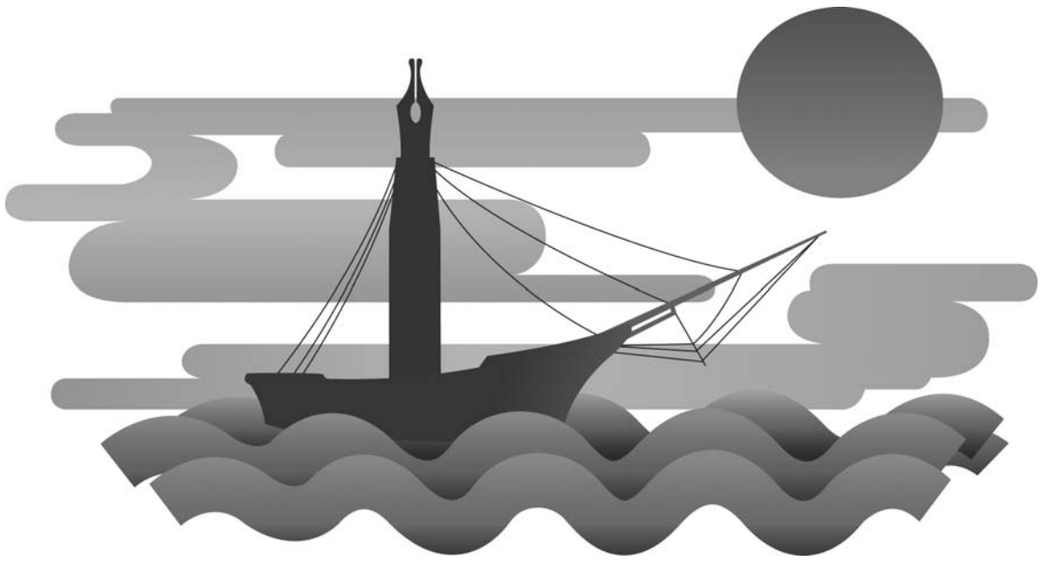
전북도가 연초에 3년만에 0% 대 경제 성장률에서 벗어났다고 보고했었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하다. 그때도 통계청의 소식을 두고 반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표정 짓기가 난감하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예기치 않게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를 맞은 이후 지금까지 수개월 간 곤란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지만 그후 실효성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는 까닭이다.

도민의 개인 소득이 전국 대비 꼴찌 수준이라는 보고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 한다. 일반 서민의 살림살이 신호등이 늘 빨간불인데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광역시도를 보면 코로나 발병 사태 이후 고용환경이 심각하다. 전북 지역 역시나 고용률이 저조할 터인데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말이지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여전히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와 공공기관들은 현실을 보아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데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전북도는 알바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에서 허덕이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청년 고용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고용 실적이 낮음에도 괜찮은 것처럼 넘어 가려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저번에 2.2%경제 성장률을 내다보면서 희망을 말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터이다. 어쨌거나 전북도는 개인 소득 전국 최저라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